

## 제 6 강 종말론! 희망에 대하여

### 5강 복습

- 천당-지옥틀 벗어나기
-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대속을 너머서
- 다양한 성서의 구원 이미지 회복
- 구원을 누리는 삶

지난 주는 구원에 대하여 살펴 보았지요! 강의를 정리하다 보니, 저 자신도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 말고 하느님께서 새로운 뭔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고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기존의 생각과 이해가 한국 교인들에게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어서, 천국-지옥틀과 같은 것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심정적으로 잘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천국-지옥틀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데 그런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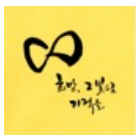
몇 가지만 복습해 보자면, 우선 천국 즉 하늘 나라는 원래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였고, 그 나라는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써 현재도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천국-지옥틀에서 비롯된 내세의 사유는 하느님 나라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뿐 아니라, 지옥과 관련해서는 유한한 잘못에 영원한 처벌이라는 매우 비상식적인 법적 논리를 하느님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것임을 살폈지요. 따라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죄와 예수의 대속, 천국-지옥틀을 넘어서 성서가 말하는 다양한 구원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자세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죄’와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려는 노력이 원죄론을 탄생시켰고, 원죄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양산해 내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죄악의 연대성과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 “사랑의 실천” 속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지요. “누구를 위하여 희생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말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전제되면 그 논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조건에 매여 있는 법률적 사고 안에 갇히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유일회적 죽음이라 하더라도 결국 A라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B라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죄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육체의 유한성과 정신의 무한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사이에서 교만, 태만, 실수, 우상숭배 등 고통을 양산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 죄를 줄여서 고통 또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느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할 지를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전쟁과 온갖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등등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딸로 하느님의 구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종말론! 희망에 대하여”입니다.



## 6강 종말론! 희망에 대하여



그림출처, <http://hospace.tistory.com/4812>

여러분 종말이 올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가 끝장나는 그런 날이 올까요? “000 :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겠지요.” 아, 그런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나요? 여기 혹시 종말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종말은 누구의 종말일 때 말하는 것인가요? 나 자신? 지구 세계? 우주?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것인지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종말을 경험한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 며칠

뒤에 다시 의식이 깨어나는 일이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약 10% 정도가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적은 책들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연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죽음 이후의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 돌아 왔으니까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라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의 종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가, 세계의 종말, 종말 이후 등의 모든 논의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 상상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나 종말론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올까요? 지구의 종말은 확실히 오지요. 태양의 나이가 있으니까요. 태양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다 타서 없어지면 지구도 끝나지요. 그런데 장희익 교수님이 예전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지구생물이 1년에 대략 1300여종이 없어진답니다. 환경오염으로요. 태양이 다 타기 전에 인류의 자연파괴로 종말이 먼저 올 지도 모르지요. 최근 서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마스크 쓰고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 북경은 그 정도 미세먼지면 창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킨다네요. 아무튼 생태 문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얘기가 딴 데로 흘렀네요. 아무튼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지요?



## 종말 이미지



종말 이미지로서의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구절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휴거 얘기를 듣고 자주 꿈을 꿔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 갔는데 저만 땅에 남아 있는 꿈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000 : 불교 신자들은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종말이 없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불교가 윤회를 말한다면 그건 일종의 영혼불멸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이 윤회를 끊고 해탈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힌두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끝내 윤회를 포기하지 못했지요. 다만 이 윤회가 단순히 영혼불멸은 아니고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어떤 기억과 정보는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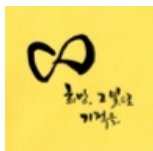
여러분 세계의 끝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천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하면서 예수의 재림과 관련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논의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지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로 들리니까요? 그럼 세계의 종말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치고 개인의 종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000 : 죽으면 바로 끝이라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한다.

000 : 중고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천국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 즉 사라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지요.

000 : 개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사회적 관계나 영향력들이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상이나 생각들로서 경험으로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과 유전자 뭐 등등

좋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보도록 하지요.



## 종말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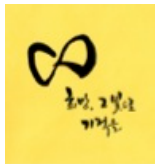
- “마지막의 것”, “궁극적인 것” : eschaton
- 종말론이 다루는 것 : 죽음, 죽음 후의 상태, 예수의 재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새 창조의 시작, 영원한 생명 등
- 기독교의 종말론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앞당겨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의 이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끔 종말론이라는 말을 쓰시지요. 저도 어릴 때 들었는데, 도대체 뭘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헬라어로 에스카톤,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의 것 또는 궁극적인 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흔히 다루는 문제들은 죽음, 죽음 이후의 상태, 예수의 재림,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 등과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위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죽음이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알기란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 있으니까 죽음을 모르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식능력이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죽음을 알 수 없겠지요.

예수님은 재림하실까요? 2000년 넘게 안 오셨는데 정말 오실까요?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말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나요?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 : 요즘에는 화장(火葬)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부활 때문에 교회에서 화장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지요.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 몸매와 얼굴,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한 몸도 그런 몸인가요?

종말이 다루는 것들에 대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고 집단적으로 기다리다 자살하는 일도 생기고,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으로 읽으면서 666이니 뭐니, 요즘에는 베리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떠 다니는데 오늘날 이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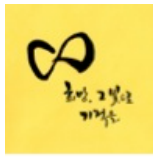


## 종말론의 기능

-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통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정립
- 인간의 세계와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태도 정립
- 개인과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의미와 목적 상실에 대한 치유

종말론은 인간들의 상상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종말론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의 삶의 태도를 설정한다든지, 인간의 세계와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의미와 목적 상실에 대한 치유 문제 등 종말론은 나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말론이 다루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익을 창출하기도 하지요.





## 성서의 종말론

- 구약 : “새하늘과 새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 차안적이며 “세상적인” 종말론, 개인의 내면적 구원을 포함한 사회의 구원 강조, 생태학적이며 생명의 종말론, 지금 세계의 부정 즉 불의하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의 거부
- 신약 : 하느님 나라의 완성, 현재적 종말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략히 뽑아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의 세상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거나,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너머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실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도 그 내용이 주로 차안적이며 세상과 관련된 일들이며 개인의 내면적 구원을 포함하여 사회의 구원을 강조하고, 생태학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현재의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부정하고 잘못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의하고 부정하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종말론의 한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개량이 아니라 전적인 거부이고 사회의 완벽한 변혁을 꿈꾸지요. 이런 변혁이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과 연관된 생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종말론이며, 신약에서는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과 교회의 활동,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라고 할 때,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새로움이란 과연 어디에서 가능한가?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미래이지요. 미래는 단순히 현재가 쌓여서 생긴 결과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축적물로서의 현재를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서의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를 오늘에 앞당겨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이 기대하는 바이고, 예수가 아직 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이미 온 것처럼 사신 것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말론이 다루는 주제들을 하나씩 되짚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운명의 사슬에 묶인 미래가 아니라, 새로움의 창출로서의 미래이고, 미래라는 상상력의 실현으로서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 Menento M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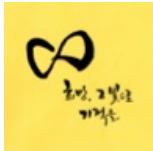
- 죽음 배제의 사회 :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죽음에 무감각하거나, 죽음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태도 -> 현실에의 집착과 탐닉, 끝없는 자기 추구,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의 현실에 대한 무관심, 냉정하고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인 사회,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 개인,
- 죽음을 의식 하는 삶 : 겸손한 인간, 죽음을 준비함,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있게, “참”과 “영원” 숙고, 주어진 것과 존재에 대한 감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조헌정 목사님께서 향린교회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유언장 쓰기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새교우 영성 훈련으로 했었지요. 일년에 한번은 유언장을 새롭게 고쳐쓰도록 장려도 하고요. 유언장 쓰기는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자면 우리 사회는 죽음 배제의 사회입니다. 죽음 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 교육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죽음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지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거나, 죽음에 무감각하고, 죽음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면서 삽니다. 죽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에도 죽음을 배제하고 없는 것처럼 살면 현실에 집착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탐닉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죽음의 현실에 무관심하며, 타인의 고통에 냉정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갈수록 비인간적이 되어가는데, 그런 사회가 당연한 것인 양 그런 사회에 순응하며 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일단 겸손한 인간이 되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한 가지, 죽음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 입니까? “000 : 좋은 것입니다. 늙기만 하고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을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신나는 삶을 살면 죽기 싫을 것이고, 지금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늙어 병들고 아프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죽지 못하면 그것 또한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막상 죽음에 닥치면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을 오래도록 돌보며 죽음에 대해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의하면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는 우울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죽음에 닥치면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 오는 것이지요.

그런 죽음이 오기전에 죽음을 생각해 보면, 역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게 하지요. 삶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진정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보게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리라고 한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삶의 유한성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죽임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죽음

- 죽음의 이중 구조 :
  - 숙명인가? 해방인가?
  - 자연적인 것인가? 죄의 결과인가?
  - 생물적 차원/존재-실존적 차원
- 존재의 성취/궁극적 자기 정체성의 완성
-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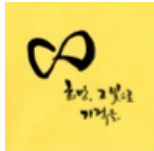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보다 충실하게 사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위에서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은 자연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요? 죽음은 숙명인가요? 해방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자연스럽고 심지어 육신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해방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음은 비극이자 고통,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생물적 차원에서 나이 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해 왔기에 헛갈리는 지점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물적 차원입니다. 생물적 차원에서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자연스런 죽음에서부터 병으로 인한 죽음까지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명을 못다하고 죽으면 억울하고 한이 생기지만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차원에서 죽음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면에서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어느 학교를 졸업해야 비로소 그 학교의 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만약에 중간에 자퇴를 하면 그 학교의 졸업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죽음은 우리의 삶의 완성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죽기 전에 아직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의미 차원에서 삶과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 목숨부지와는 다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있고,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죽음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삶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제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는 동인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의 완성과 존재의 성취로서의 죽음을 맞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역설적으로 얽혀 있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삶과 죽음으로 시작해서 삶과 죽음을 마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하느님의 영원한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죽음 너머

-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 : 이원론과 총체성
- 영혼 윤회설
- 연옥설 : 정화의 장소
- 죽음 곧 부활
- 전적 죽음
-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
- 죽음 후의 생명

그렇다면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 너머에 대해 많은 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영혼이 뭔가요?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과 육체, 이 둘 중에 육체는 땅에 묻혀 썩지만 정신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육체와 정신을 나누는 이원론에 기반한 사유로서 육체는 열등하고 정신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 땅의 물질적 삶을 버리고 고매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에 갇혀 있던 정신의 참된 자유가 죽음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불멸이 그리스도교의 사상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신앙과 영혼불멸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서로 반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은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죽은 다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하느님의 전적 은총에 따른 것인데, 이런 하느님의 은총 없이 영혼이 불멸한다면 굳이 하느님의 은총을 말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에는 영육 이원론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몸은 전인적인 몸이고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 사상처럼 육체를 천시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관계와 다른 생명체들과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나 정신이 불멸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전적인 새로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영혼이나 정신이 계속 된다면 새로운 무

엇이 발생할 수는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죽음이야말로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약화시키고, 또한 육체를 지니고 사는 삶의 진지함과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무엇이 윤회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알고 있듯이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혼 불멸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나의 정체성을 가진 그 무엇이 여러 모양으로 윤회한다는 사상은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제시하고, 다음 세계의 삶을 위해 오늘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배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회설은 그 무엇이 되었던 큰 틀에서 인과율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삶과 세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 중에는 연옥설도 있는데요. 연옥설에서 개신교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개신교는 “오직 성서로만!”을 외쳐 왔는데, 연옥설은 성서에서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옥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기회를 준다는 것, 하느님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죽으면 바로 지옥에 안가고 연옥에 가죠. 정화를 다하고 나면 천당에 가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연옥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줌으로써 산 사람이 죽음을 늘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옥설 또한 큰 틀에서 영혼 불멸의 아류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과 꼭 별이나 정화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죄과를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그레스하케라는 학자는 “하느님 자신이 연옥이다. 우리는 ‘연옥’이라는 표현을 .... 피하고, 그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요소로서 정화와 정결에 대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연옥은 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요소이다”<sup>1)</sup>라고 하면서 연옥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부활신앙의 대립점을 없애기 위해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생각인데요. 이 생각도 각 개인의 죽음 이후 부활과 마지막 때의 모든 부활과 연결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 불멸에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전적 죽음”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여러 구절이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에 이런 생각도 역시 그리스도교의 죽음 이후의 상태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다 피하여 나온 결론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한다는 생각이 가장 넓게 수용되는 그리스도교의 죽음 다음의 상태의 설명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 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언어나 설명은 상상력의 결과이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임사체험을 근거로 죽은 후에도 어떤 모습으로든 기간에 생명의 연속 또는 의식의 지속이 있다고 하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체험이 완벽한 죽음 이후의 것인지에 대해 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성서가 쓰인 시대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부활 논의도 현실의 핍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 자체 보다 오늘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지요.

1) 김균진, <죽음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3. 335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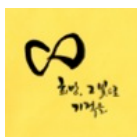


## 지옥

- “신은 죽었다” 와 “저승에 가시어”
- 헤르만 헤세  
안개 속을 가는 마음  
삶은 외로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모르고  
저마다 홀로 있다.

지옥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서의 지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하기엔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 초월의 능력 등이 가만이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천국, 지옥 논의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지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저승에 가시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정말 지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지 말고 만약에 지옥을 완전히 홀로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본다면 어떨습니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시 한 구절 보지요. “안개 속을 가는 마음, 삶은 외로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모르고 저마다 홀로 있다.” 정말 지옥이지 않나요? 아마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 오는 것은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 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신 후 저승에 가셨다”는 고백은 저승에서 완벽하게 홀로 있는 이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배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홀로 갇혀 있는 상태가 지옥이라면 부활과 영생 또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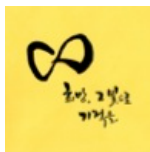


## 부활

-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아가 8,6)
- 인간의 존재 규정 :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타인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이
- 자손을 통하여 또는 다른 이에게 기대어 살 것인가? 사랑으로부터 와서 사랑하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 것인가?

인간을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타인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이라고 규정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곧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손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족보를 만들고, 조상 제사를 철저하게 하는 유교문화권이 바로 이런 유형일 것입니다. 자손은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 받았으니 생명의 유지에 더욱 확실한 보장이 되겠지요. 자손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여전히 생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소멸하는 존재이기에 나의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시는 분, 본질이 사랑이시고 전지전능을 속성으로 가지시는 분이실텐데 그분으로부터 오신 예수에게 의존하는 것과 자손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만큼 강한 사랑을 선택하자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제안이고 이것을 부활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사변적인 것 같지요!! 아무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뭔가 얻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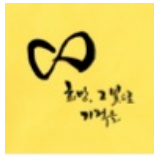


## 재림과 최후의 심판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 16,33)
- “불의가 마지막 말일 수는 없다. 살인자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하여 승리할 수는 없다.” 호르크하이머

다음 주제로 넘어 가지요. “재림”하고 “최후의 심판”은 왜 이야기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면 충분한데, 꼭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궁극적 모습이 그냥 사랑이라기 보다 정의가 넘치는 사랑이어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 세계의 마지막이 불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입니다.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철학자가 말한 대로 불의가 마지막 말일 수는 없고, 살인자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하여 승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전능한 하느님이 정의가 넘치는 사랑으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을 해야 했던 것이고, 마태가 전하는 것은 놀랍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임을 보면 그리스도교가 참 괜찮은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제 우리의 강의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할 것 같습니까?



##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앞당겨 일어나는 하느님 나라의 약속
- “약속이 의미다” 본 회퍼
- 종말론의 영성 : 현실초극,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의 동참함, 약속의 현재적 성취, 즉 의미 실현, 새 하늘 새 땅의 창조 비전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에,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기에 맨 마지막도 궁극적으로 그런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 “약속이 의미다.”라고 말하시는데,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의 우리 삶의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뤄질 것을 믿는다면,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땅의 비전 속에서 현실을 초극하고, 하느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며 세상의 변혁에 일조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부정의에 눈감지 않고 거부와 저항을 통해 새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자신을 던지기도 하겠지요. 이것이 곧 미래를 앞당겨 사는 이들의 삶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가장 좋은 실례는 바로 어린 아이에게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가 어떤가요? 어린이의 특징 첫 번째는 관계적 친화성이에요. 아무나하고 금방 친해지죠. 그리고 호기심이 무척 강해요. 낯선 곳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일말의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에 매우 관심을 보이다가도 새로운 것이 생기면 이전 것은 과감히 놓아버리는 비집착성이 있지요. 이것과 관련하여 어린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영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있을 일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의 영성인데요. 만약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해 봅시다. 아이들은 내일 가는 그 소풍 때문에 오늘부터 신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린이예요. 어른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일 소풍 간다고 해도, 비 올 걱정, 차 막힐 걱정,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할 생각 등등 많이 하지요. 그러나 어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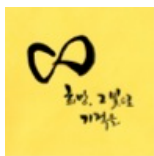


질문 “000: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착각이면 어떻게 하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요. 모두가 거짓이고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예수 체험에 근거한 희망이었기에 근거 없는 무지막지한 낙관적 희망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일부분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착각이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 분께서도 분명 일종의 체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체험이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체험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기치 않게 오는 은총을 맛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 체계가 다 착각이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에서 듣고 배운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편하게 종교를 떠나면 됩니다. 교회 걱정 마시고, 나 하나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느님이 망하시진 않아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교회에 다니실 필요는 없지요. 다만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도전하느냐, 그냥 대충 church-goer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다음 주에 할 이웃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종교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지요~ 돌아가시는 길에도 하느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끝 -



## 참고문헌

김균진, <죽음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V>,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정재현,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분도출판사, 1999.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분도출판사, 2007.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길희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도서출판 새길, 2009.